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상처가 따르기 마련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실천에 옮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이런 상처를 흉터가 아닌 훈장이라 생각한다. 노력과 열정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처가 영광의 징표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 실패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청호환경개발



### 필요한 것은 행동

지난 1994년 설립된 청호환경개발은 그 외양만으로 보자면 작은 회사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비전 역시 작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오히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유연성과 순발력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호환경개발이다. INNO-BIZ, VENTURE 인증, 각종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창과 수상 실적이 그런 사실을 증명해 준다.

청호환경개발의 주력 사업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하수처리장의 여과기 설비와 녹조제거 시설, 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기법 등이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이 뿐만은 아니다. 태양열과 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도 적잖은 연구와 투자를 한 경력도 있다. 사업성 혹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도 덩치 큰 기업들이 외면하는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남보다 먼저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실패 또한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드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청호환경개발의 진면목. 주력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아낌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모습은 오히려 현재에 안주하는 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청호환경개발의 혁신 노력은 비단 기술과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재의 힘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중소기업이기에 구성원의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신제품이 개발되면 영업사원 뿐 아니라 전직원이 제품을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계끔 유도한다는 것. 매주 실시하는 프리젠테이션 교육은 단순히 발표력을 배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참가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게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누구나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멀티플레이어를 육성하는 것이다.

### 물의 재생은 생명의 재생

이렇게 탄탄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청호환경개발의 가장 큰 성장동력은 누가 뭐래도 임형엽 사장의 왕성한 활동이라는 게 직원들의 귀뜸. 창업 이래 지난 10년 간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매일 사람을 만나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발로 뛰어 지금의 청호환경개발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런 열정 뒤에는 임형엽 사장의 물에 대한 애착이 숨어 있다.

“물의 오염은 토양의 오염으로 직결되고 토양의 오염은 필연적으로 동식물의 오염과 연관됩니다. 때문에 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10년 후에는 상수보다는 하수와 우수 관련 기술이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 역시, 물을 되살리는 일이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그의 신념 때문이다. 청호라는 이름처럼 맑고 푸른 물을 만드는 회사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 역시 임형엽 사장의 굳은 신념으로 인해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회 기업회원의 기업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문의 :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 (직통전화 : 02-3156-7731)



### 장모 여과기

회고 북실거리는 털을 가진 스피츠라는 건종의 털과 유사한 모양의 필터를 가져 드럼 스피츠(Drum Spitz)라고도 불리는 이 장모 여과기는 기존의 모래 여과기에 비해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고압 살수 과정을 거치면 필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적용분야는 하수처리장의 부유물질 제거, 완속 여과지 및 전처리, 막여과장치 전처리, 중수도 여과시설, 호소내 녹조제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질정화습지 시스템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설비라는 장점과 함께 습지생태계를 복원하는 데에도 적절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라남도 여러 곳에서의 공사실적을 갖고 있다. 특히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한 고도처리 시스템은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는데, 부유물 정화를 위해 심어놓은 꽃창포가 지역의 명물로 부상하는 부가효과까지 얻었다.



### 인공 식물섬

수질 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부력을 가진 구조물에 식재해 물 위에 떠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고기나 조류 등 수중 및 수생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식재된 식물은 동시에 수질을 개선토록 하는 아이템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폭기장치까지 결합한 복합수질 정화장치이다.

